

총장 취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학 54년의 역사가 깃든 이 자리에서 제9대 총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영광스러운 마음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대학을 정성껏 이끌어주신 전임 총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보여주신 경륜을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보내주신 교수님, 직원과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 이 마음의 빛을 갹는 길은 단 하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더욱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만드는 것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송대 가족 여러분,

저는 30년 전, 뚝섬 서울지역대학의 한 강의실을 잊지 못합니다. 연령도, 직업도 서로 달랐지만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열망 하나로 칠판 앞까지 가득 채워 앉아 있던 그 열정의 눈빛들. 그날의 경험은 제게 참다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발견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배웠고, 이 깨달음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원격교육의 확산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역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 자체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는 방향을 잃은 조직에게는 위협과 절망이지만, 방향을 아는 조직에게는 도약과 희망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실한 인식과, 우리 대학의 선명한 정체성을 토대로 부단히 진화하는 우리 대학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우리 대학을 다시 세울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인의 삶을 디지털 유목민의 라이프 스타일로 명명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보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21세기형 신인류를 뜻하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디지털 유목민의 삶의 방식을 교육에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학문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이 구현한 교육 방식의 혁신은 이미 미래의 삶의 방식을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선취한 당연한 일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나온 노정과 성과를 자랑스러워 하고, 다가올 미래완료형 대학의 구체적 그림을 전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품에 안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 내내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공공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4대 정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 위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따뜻한 미래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교육의 기반이 되는 시대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의 교육은 더욱 따뜻해져야 합니다. AI 생태계가 작동하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학문과 교육 환경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더욱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의 대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방송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학위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의 내실을 다져 졸업생들이 사회 어디서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배움이 이어지는 진정한 '국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존중'이 살아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대학의 힘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수님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직원과 조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경직된 위계와 편견의 외투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따뜻한 관용과 진심 어린 존중이 숨을 쉬는 방송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몸은 다소 고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기꺼이 감당하고 즐길 수 있는 대학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학의 다음 단계를 향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엄중하게 약속드립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변화의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방향 속에 온전한 결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약속한 바를 묵묵히 실천하겠습니다.

4년 뒤, 이 자리를 떠나는 날 "방송대가 더 단단하게 도약했고, 더 따뜻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김종오